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멘터리 (바다술, 생명의 터전)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홍춘록 55 안영우리말	00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재)	00 그린실버 고갱이 좋다	10 닥터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50 SBS12뉴스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민선6기 광주 현안 어떻게 하나)(재)
1 50 뉴스특급	00 역사자널 그날(재) 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10 청사특집 사사토코 이슈를 말한다(재)	55 유럽의 해안선
2	00 명인(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5(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이언경의 직언직실	40 아생일기(재) 50 바르셀 고평(재) 55 튜트생활제초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공공부작성 위기	00 MBC 뉴스 10 토크뉴스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생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재) 20 취재파일(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안영주 자두야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파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다칠필이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2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10주년 특집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유평이 나르사)
11 00 밀착특공 종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5 힐링캠프 500인
12 40 충격 실화극 싸인(재)	20 해외걸작 드라마 (닥터 후)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실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위기의 '무한도전', 돌파구는 어디에...

정형돈 부재 등 고심... 김태호PD "변화할 새로운 도전 구상"

“토요일 저녁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2009년까지 웬만한 건 다했다.”
MBC TV ‘무한도전’의 김태호PD는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새로운 도전’ 특별 강연에서 이런 고충을 털어놨다.
‘무한도전’은 2005년 ‘강력추천 토요일’ 속 코너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해 10년을 넘어서 달려왔다. 지난해 멤버였던 노홍철·김이 유주운전으로 잇따라 하차했을 때를 포함해 ‘위기’가 수도 없이 제기됐지만 ‘무한도전’은 묵묵히 콘텐츠로 우려를 잠재워왔다.
그러나 다시 위기다. 시청자들은 TV보다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함께 해온 멤버 정형돈은 오랜 기간 앞단 불안장으로 결국 방송을 중단했다.
◇4대 천왕 정형돈의 공백 어쩌나
당장 ‘무한도전’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형돈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맨, 그러나 ‘못 웃기는 개그맨’이었던 정형돈은 ‘무한도전’을 통해 ‘미준개요’(미친 존재감 개화동 오렌지족)으로, 자칭 타칭 ‘예능 4대 천왕’으로 거듭날 만큼 성장했다.
특히 멤버 간의 ‘합’이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무한도전’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정형돈의 부재는 커 볼일 수밖에 없다.
김태호 PD는 연합뉴스에 “무도 드림” 녹화가 정형돈 방송 중단 발표 직후라 언급이 안될 수 없었다”며 “형돈이 부재가 계속 언급되는 건 형돈이를 더 힘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하게 쉬게 두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 예능”이라는 왕관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 논란 하나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해는 특히 그랬다. 4월에는 김이 유주운전으로 하차했고, 6월엔 ‘홍철야 장가가지’ 특집이 여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11월엔 김이 이어 노홍철도 유주운전으로 자숙에 들어갔다.
논란이 사그라진 최근에는 과거보다 재미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무한도전’이지만 같은 포맷, 같은 출연자로 뿔아낼 수 있는 재미에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시즌제...돌파구는 어디에
‘무한도전’은 연말연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재능 기부 프로젝트 ‘무도 드림’을 통해 예능, 교양,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환경에 멤버들을 ‘던져놨다’.
‘내 딸, 금사월’에서 ‘신스틸러’가 된 유재석,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우왕좌왕하는 정준하, 이틀도 생소한 ‘그린 실버 고갱이 좋다’에서 방어잡이를 하며 긍정 에너지를 뽐낸 광희까지.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을 멤버들에게도, 심드렁하게 그저 버텨처럼 ‘무한도전’을 보던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 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잠깐 효과’일 뿐 10년간 급격히 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무한도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한도전’의 변화에 대해 말을 아끼던 김태호 PD는 ‘새로운 도전’ 강연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플랫폼 변화’ ‘시즌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입을 열었다.
김 PD는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무한도전’ 역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무한도전’과 (SBS의) ‘런닝맨’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국이 아닌 인터넷으로 방송하면 어떨까, 하고 인터넷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생각해왔다”고 했다.

2008년엔 ‘무한도전’의 영화화를 추진하다가 무산됐다는 사실과 매년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는 ‘무한상사’는 시즌제 시트콤으로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털어놨다.
김 PD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형돈 방송 중단 이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고 몇 가지 계획도 있다”면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노홍철·김 하차 이후 새로운 멤버를 찾는 ‘식스맨’ 프로젝트로 위기를 정면돌파했던 ‘무한도전’이지만, 유주운전으로 하차한 두 사람과 달리 정형돈은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운 것이어서 시급히 새 멤버를 찾지는 않는다.
김 PD는 “아직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공백을 메울 여러 기획을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무한도전’ 위기의 역사
카메라 2대, 블레이크 1개로 예능 프로그램을 찍던 시절 출연자에게 각각 카메라를 붙이는 ‘혁신’으로 예능 판도를 뒤집은 ‘무한도전’은 그 위상만큼이나 큰 기대를 받았다.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보장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05:40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6:30 코코코 다코	20:40 다큐 오늘
0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단종영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행복한 열대, 마다가스카르〉
08:00 당동맹 유치원 1	13:05 지식세미나	17:45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기여행
08:10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가을 무용도원을 찾아서〉
08:20 당동맹 유치원 2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5 케니멀	21:50 EBS 다크프라임
08:30 두다다쿵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학교의 기적〉
08:40 당동맹 유치원 3	14:00 미술원형대	18:25 두기담형대	22:45 달려있어요
08:45 코코코 다코	14:30 놀이터 구즈대 보잉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23:35 프래임인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발명이 팡팡	24:05 지식세미나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계열>	12:15 뉴 탑스런 <윤리와 사상>(재)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수능특강highlight <영어-독해>
01:40 " <문학-알파계열>	14:00 수능열기 <수학(가형)>(재)
02:30 " <미적분>	14:50 수능 길잡이 <국어-독서>(재)
03:20 " <수학 1>	15:40 " <영어 독해-구문>(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	16:30 " <영어-듣기>(재)
05:00 뉴탑스런 <물리>	17:20 2017 수능개념
06:00 " <생명과학>	(체인지 수학II)
06:50 " <동아시아사>	18:10 " <화물과 통계>
07:40 " <윤리와 사상>	19:10 뉴탑스런 <동아시아사>(재)
08:30 수능열기 <수학(가형)>	20:00 EBS스타강사 특강
09:20 수능 길잡이 <국어-독서>	20:50 수능개념
10:10 " <영어 독해-구문>	(물리 I 에 몰들다)
11:00 " <영어-듣기>	21:40 " <해석 공식>
12:10 5분과탐 - 물리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국어 4-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2>
08:30 AT 자격 시험대비강좌	16:50 "	<국어 6-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9:10 TV중학 <국어(1)(2)>	17:50 다큐 오늘	
09:50 " <수학(1상)>	18:00 TV중학 <국어 5.6>	
10:30 " <역사 1>	18:40 " <수학(3상)>	
11:10 " <국어(3)(4)>	19:20 필독중학 세계사	
11:50 "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50 EBS 기획시리즈	
13:00 대일리 서술형 수학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통합신공 <수학(1상)>	22:00 통합신공 <과학 2>	
13:50 " <과학 1(상)>	22:40 " <수학(3)>	
14:30 " <수학(2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2>	
15:20 만점왕 <국어 3-2>	24:00 왕기초 중학 <수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0일(음 10월 19일 庚戌)

子 48년생 학수고대했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60년생 상대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72년생 체면을 차리려 하지 말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볼 일이다. 84년생 느리더라도 정확히 행하라. 행운의 숫자 : 75, 02

丑 49년생 도를 넘으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61년생 숨은 뜻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하느니라. 73년생 정곡을 찌르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85년생 힘들더라도 참아 내야만 발전한 세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3, 54

寅 38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라. 50년생 상당히 벗어나 있다. 62년생 욕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74년생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6년생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71

卯 39년생 추진해도 무리가 없었다. 51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63년생 중차대한 것이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75년생 인과응보의 원리가 부합하겠다. 87년생 방향을 잘 잡는다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4, 66

辰 40년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다. 52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해야 뒤야 할 때다. 64년생 호조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50, 56

巳 41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잘 활용해 보라. 53년생 쾌도난마한 후에 명확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65년생 한눈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수용하는 것도 관찮다. 77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이니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7, 93

午 42년생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다. 54년생 제반사가 양호하게 시작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리라. 66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느니라. 78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80, 08

未 43년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55년생 헛고생하게 될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하라. 67년생 기만없이 포부를 펼쳐야 할 시기이니라. 79년생 불합리한 요소가 보이거든 배제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9, 19

申 44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56년생 여건이 양호했을 때 진력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적극적으로 일하면 행운을 잡게 된다. 80년생 꾸준히 실행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30

酉 45년생 자신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가지하다. 57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괴로워 할 수도 있다. 69년생 발전을 위한 비판은 활력소가 되는 법이다. 81년생 공을 들여왔다면 적절히 쓸 수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90, 44

戌 46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58년생 뜻밖의 괴로움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 70년생 어떠한 현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뜻대가 있어야겠다. 82년생 지출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하라. 행운의 숫자 : 61, 92

亥 47년생 예상치 못한간단한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59년생 핵심을 지적하여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71년생 부대의연함에서 벗어나야 침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83년생 부당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70,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영화 '내부자들' 원작 웹툰과는 또 다른 재미

검사 등장으로 치열한 권력 대결 부각



비수극 극장가에서 흥행몰이하는 영화 ‘내부자들’은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웹툰과 영화는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큰 줄기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등장인물을 보면 웹툰의 주요 인물인 정치강패 안상구와 신문사 논설위원 이강희, 여당 유력 정치인 장필우가 그대로 영화에 등장한다. 단,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 이강희는 ‘형님·아우 사이’인 안상구를 “여우 같은 곰”이라고 표현한다. 곰처럼 무식하게 생겼는데 여우처럼 머리를 쓰러고 한다는 의미다.
웹툰에서 안상구는 이강희의 표현처럼 외모나 당치가 곰 같지만 영화에서는 안상구 역을 맡았던 외모의 이병헌이 맡았다. 안상구는 웹툰에서 웃음거리라고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조폭이지만 영화에서 다소 허술한 대가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병헌은 “관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감독님께 ‘제가 유머로라도 되겠다니까’라고 물었고, 감독님도 흔쾌히 허락해주셨다”며 안상구의 캐릭터가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에서 이강희(백승식)는 미래자동차 오너 오 회장, 장필우, 안상구 등 이른바 ‘내부자들’을 엮어주고 밑그림을 그리는 중심적인 인물이지만, 웹툰에서는 그 정도 비중이 있지 않다. 게임판의 중요한 말 중 하나이지 ‘게임메이커’ 자체는 아니라는 뜻.
등장인물에서 가장 큰 차이는 웹툰에 없는 우장훈 검사(조승우)가 영화에 나온다는 점이다. 웹툰에서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겸 기자인 이상엽이 정치권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관계를 파헤치는 인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그 역할을 우장훈 검사가 맡는다. 기자와 검사의 차이는 웹툰과 영화 간 강조점과 이야기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탓이 크다. 안상구가 미래자동차 비자금 파일을 손에 쥐었다가 미래자동차 측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이를 복수한다는 줄거리는 웹툰이나 영화나 모두 같다.
그러나 웹툰은 내부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면 영화는 인물들 간 대결을 부각하고 있다. 즉 장필우(정지), 오 회장(경제), 이강희(이런), 안상구(조폭), 우장훈(검사) 등 소위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별이는 다듬어 영화는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런 차이는 이야기 구조와도 연관된다. 웹툰은 회와 회 간 이야기의 결합이 느슨하다. 한 회 한 회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곤 한다. 이야기의 큰 줄기는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윤태호 작가는 “이 작품은 내러티브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그 사건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를 검색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때문에 판권을 팔거나 내러티브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영화는 상업영화인만큼 기승-전-결이 뚜렷하다. 또 내러티브가 확실해야 인물들 간 대결도 현실감이 살아난다. 이런 대결 구도에서 기자보다는 검사가 더 어울린다. 검사가 법 집행 기관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우민호 감독은 “웹툰이 한국 사회의 부패와 비리가 생겨나는 고질적인 시스템에 집중했다면 영화는 방향성을 달리해 장르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생각했다”며 “시스템 안에 있는 개인들의 치열한 대결로 그리면서 그 끝에 누가 이기고 살아남을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웹툰에 있는 이상엽 기자 캐릭터를 없애고 우장훈 검사를 새롭게 만든 것도 그런 방편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